



<윤석민>

<이용규>



올림픽 金 영웅들 합류

프로야구 다시 '4강 전쟁'

오늘부터 하반기 일정 돌입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난다. 프로야구가 25일간의 올림픽 휴식을 끝내고 26일부터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올림피아 사상 첫 야구 금메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프로야구 무대는 숨가쁘게 전개되는 4강 싸움으로 한껏 달아오르게 된다. 전반기 막판 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와 치열한 4위 경쟁전을 벌였던 KIA 타이거즈는 26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경기를 시작으로 4강 진출을 가능하게 된다. 25일 현재 6위에 머물고 있는 KIA는 4위 롯데와는 2.5게임, 5위 삼성과는 2게임차로 벌어져 있지만 두 팀에 비하면 한결 여유가 있다. 26일 최하위 LG와의 주중 3연전을 치른 KIA는 홈으로 이동해 7위로 처져있는 우리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올 시즌 8승6패, 8승4패의 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LG·우리와의 6연전이니 만큼 대진운은 좋다. 게다가 0.5게임차로 4~5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와 삼성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펼쳐야 하는 만큼 두 팀이 주고받는 승패에 따라서 주말 세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KIA의 주말 대반전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이용규·윤석민·한기주 '금메달리스트 3인방'이다. KIA 투·타의 핵심인 이용규와 윤석민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테이블 세터'와 '믿을맨'으로 야구 금메달 신화의 주역이 됐다. 문제는 베이징에서 보여준 실력이 프로야구 무대에서도 발휘될 수 있느냐이다. 대표팀은 지난 13일 미국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9일 쿠바와의 결승전까지 9경기를 치렀다. 강우로 서스펜디드 경기가 발생하면서 11일 중 10일 동안 그라운드에서 뛰는 강행군을 펼쳤다. 결승전 결승타 주인공인 이용규는 올림픽에서 0.481의 타율로 전체 2위에 랭크됐고, 윤석민은 올림픽 5경기에 나와 2승1세이브, 2.35의 평균자책점을 보였다. 연일 맹활약을 하느라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계속된 일정에 컨디션 조절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기주의 활약여부도 KIA 4강행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반기 철벽 마무리로 제 몫을 해주던 한기주는 올림픽 무대에서 2와 3분의1이닝동안 7피안타 6실점(5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이 무려 21.43이나 된다. 한기주는 최악의 난조로 야구팬들을 웃고 울리며 본의 아니게 멍승부(?)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제 무대에서 호된 경기를 경험하고 온 한기주가 얼마만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KIA의 주말 표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싱, 바클레이스 우승

최경주·앤서니 김 공동 12위

45세의 노장 비제이 싱(사진·피지)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바클레이스 대회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보너스 1천만달러가 걸린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싱은 25일(한국시간) 뉴저지주 퍼머스리지우드 골프장(파71·7천30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케빈 서덜랜드(미국)와 8언더파 276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두번째 홀에서 탭인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3주 전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던 싱은 통산 승수를 33으로 늘렸고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1만9천500점을 쌓아 1위로 올라섰다. 4타차 역전 우승을 노렸던 앤서니 김(23·



나이키골프)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5언더파 279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5언더파 279타로 공동 1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는 4오버파 288타로 공동 65위를 차지했다.

커, 연장 접전 우승... 한희원 5위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크리스티 커(사진·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커는 25일(한국시간)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골프장(파72·6천39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3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헬렌 알프레드손, 소피 구스타프손(이상 스웨덴)과 13언더파 203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승리했다. 2007년 US여자오픈 우승 뒤 1년여만에 다시 정상에 오를 커는 LPGA 투어 통산 11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한국 선수 중에는 한희원(30·힐라코리아)이 6언더파 66타를 몰아치며 추격에 나섰다



만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5위에 만족해야 했고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0·LG전자)은 7언더파 209타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안니카 스펠스타(스웨덴)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한국 골프 장타자대회

쌍둥이 형제 1·2위

지난해 407야드를 날리는 괴력의 고교생 장타자 박성호(18)를 탄생시켰던 한국장타자 선수권대회에서 이번에는 쌍둥이 형제가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가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25일 강원도 원주 오르베리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공평안(26) 씨는 386야드를 날려 1위에 올랐다. 공제 쌍둥이 동생 정안(26) 씨는 381야드를 때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차 예선에서 평안 씨가 우승하고 정안 씨는 4위에 머물렀지만 정안 씨는 7월 3차 예선에서 2위에 올라 결선 티켓을 잡았다.

26일(화) ▲2008 메이저리그(LA다저스·필라델피아) (07:55·XSPORTS) ▲제3회 고대총장배 전국남녀고교농구 (13:50·SBS스포츠) ▲2008 연평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 남북결승전 (14:00·KBS N 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 (17: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롯데·한화) (18:30·MBC ESPN), (삼성·우리) (18:20·X-SPORTS), (KIA·LG) (21:00·SBS스포츠)

광주일고·순천 효천고 8강행

이영표 방출 대상

토트넘 '이적 8인방'에 포함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광주일고가 제3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구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충암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25일 수원구장에서 벌어진 충암고와의 대회 16강전에서 7회 4점을 뽑아낸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6-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1회초 충암고의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광주일고는 1사 2·3루에서 3루타를 허용하면서 2점을 먼저 내줬지만 3회말 손명기의 적시타로 1점을 따라붙였다. 4회말에는 정승인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며 2-2로 균형을 이루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7회말 상대투수 정용운의 폭투로 2점을 추가한 광주일고는 2사 1·2루에서 터진 강백산의 싸늘이 2루타

에 힘입어 6-2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일고는 27일 오후 6시 대구고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한편 앞선 24일 군산상고를 상대로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선착한 순천 효천고는 26일 오후 6시 청원고와 4강 다툼을 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인 2호 프리미어리거 이영표(31·토트넘)가 토트넘 홋스퍼의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뽑은 '완전 이적 또는 임대 대상'에 포함됐다. 영국 대중지 선데이미러는 25일(한국시간) '토티님이 처리할 선수 8명(Tottenham to axe eight players)'이라는 기사를 통해 "토티님이 1군 선수들을 정비하고 몸값을 줄이기 위해 선수 8명을 이적시키거나 임대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인동상일부동산 (0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원주택... 임야... 기타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2)383-5221... 건물... 땅... 명원·화원·수파·시당 기타... 모텔·호텔매매·사우나

HOME 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0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인!

금당부동산 (062)223-7400... 공사·감정·가 70%이하... 임대·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